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온라인 뉴스서비스입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내란 혐의' 윤 대통령 구속... 헌정사 최초



헌정 첫 구속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다. 윤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서 나와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 합동 추모식



제주항공 행사 '우리가 함께 기억할게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20일 만에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합동추모식이 열렸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유가족협의회와 국토교통부, 전남도 등은 지난 18일 오전 무안국제공항 2층

국제선 대합실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을 열었다. 이날 합동추모식은 '우리가 함께 기억할게요'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는 진도 씨깡국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희생자 애도 묵념, 헌화·분향, 내빈 추모사, 추모영상 상영, 편지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유가족들은 서로를 다독이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정보라, 세계 3대 SF 문학상 후보에... 韓 최초



한국 소설 최초 세계 3대 SF문학상 후보

정보라 작가의 '너의 유토피아'가 한국 소설 최초로 세계 3대 SF(과학소설)문학상 중 하나인 미국 필립 K. 디크 상 후보에 올랐다. 너의 유토피아 영어 번역본은 필립 K. 디크 상 후보 6편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으며 수상작은 올해 4월14일 발표된다. 미국에서 출판된 SF에 주어지는 필립 K. 디크 상은 휴고상, 네블라상과 함께 세계 3대 SF문학상에 꼽힌다. 한국계 미국인 이윤하 작가가 휴고상, 네블라상 후보에 이름을 올린 적 있으나, 한국인 소설가의 한글 작품이 3대 SF상 후보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너의 유토피아는 2021년 출간된 소설 모음집이다.

CNN "가장 열심히 일하는 나라의 휴식은?"



CNN이 한국 사진작가 김승구씨의 작품을 통해 바쁜 일상 속 여가를 즐기는 한국인의 모습을 조명했다. 김 작가는 "업무 압박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한국 여가 문화의 특징"이라며 "긴 근무 시간 속에서도 개인의 근면함과 낙관주의를 표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옥 테마 수영장에서 물놀이하는 시민들, 서울 썰매장에서 노는 아이들, 경기 포천 백운계곡에서 수영하는 가족들 등 사계절의 여가를 포착했다. CNN은 "작품은 '가장 열심히 일하는 나라의 휴식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의 답으로, 일상의 압박감과 기쁨의 순간이 극명하게 대조된다"고 평가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인스타그램에서 **진일보**를 검색하세요
<https://www.instagram.com/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300자로 hip hot 섭취하는 스낵뉴스

LA 산불로 멸종 가능성 제기된 동물들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멸종위기 조류 '캘리포니아콘도르'를 비롯한 여러 멸종위기종이 심각한 위협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화재로 서울시 면적의 약 1/4 정도가 불탔고 주민 18만명이 대피했다. 워낙 큰 사고에 인명·재산 피해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야생동물과 가족 등도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 멸종위기종 '캘리포니아콘도르'는 이번 산불이 특히 큰 위협 요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제프코원은 "심각한 멸종위기 동물인 캘리포니아콘도르 상당수가 화재 발생 지역에 살고 있다"면서 "350마리 남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일로 거의 멸종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지역에 사는 다른 멸종위기종도 위기다. 수천 마리의 개, 고양이, 말, 생명이나 서식지를 잃었다. 게다가 이 동물들이 화재를 피해 이동하면서 사람과 마주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제프코원은 "미국흑곰과 퓨마도 같은 지역에 산다"면서 "(동물들이) 음식과 물, 은신처를 찾아 내륙으로 이동할 수 있어 인간과 마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산불의 원인을 두고 방화부터 전기시설 문제까지 여러 가능성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200조원에 달하는 재산피해액이 예상되는 가운데 원인 조사에 길게는 몇달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캘리포니아콘도르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위급으로 매우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Wikimedia Commons 제공

#SnackNews #LA산불멸종위기동물 #정성현기자 #박지은편집디자인



지난 8일 발생한 미국 캘리포니아 화재를 진압 중인 소방관.

뉴스스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복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